

2022 年全国翻译专业职称评审

(一级翻译)

金国宪

2022 年 9 月

业绩材料目录

1. 评审简表·····1
2. 中译外译文·····7
3. 外译中译文·····14

5. 翻译从业心得体会·····28

附件二

评审简表

申报单位（盖章）： 申报人姓名： 金国宪 语种： 朝鲜语 拟评资格： 一级翻译 审核人签字：

一、基本情况及主要经历

姓名	金国宪	性别	男	出生年月	1986年11月	参加工作时间	2018年	现行政职务		
最高学历	博士	毕业学校	韩国外国语大学		所学专业	韩国社会文化	毕业时间	2018年2月	学位	博士
现专业技术职务（资格）	二级翻译	取得时间	2020年11月15日		同级专业技术职务取得时间			从事本专业年限		3年
专业技术工作起止时间	工作单位			从事何种专业技术工作		取得何种专业技术职称		取得职称时间		
2018年7月~2022年8月	咸阳师范学院			教师		讲师		2018年10月		
2020年11月~现在	自由译者			翻译		二级翻译		2020年11月		
年 月~ 年 月										
年 月~ 年 月										
年 月~ 年 月										
年 月~ 年 月										
年 月~ 年 月										

注 1：审核人请在首行签字并在表首加盖公章。

注 2：“同级专业技术职务及取得时间”是指由其它专业技术职务转评为翻译专业技术职务人员，其原专业技术职务取得时间。

二、任现职（取得现资格）以来的工作业绩

1. 承担重点项目情况

序号	重点项目名称	本人负责部分	级 别			项目进行时间	出版单位及时间	完成情况及效果
			地市级	省部级	国家级			
1	海外韩国学研究项目	主持		√		2020年3月2022年6月	昭明出版 (2022年7月)	已完成

2. 获奖情况（填地市级一等奖、省部级一、二等奖，国家级一、二、三等奖）

序号	获奖题目	奖项名称	获奖级别及等级	颁奖单位	获奖时间	本人承担内容
1	汉译韩	韩素音国际翻译大赛	优秀奖	中国翻译协会	2021年	汉译韩

三、任现职（取得现资格）以来完成工作任务情况

审定稿字数（万字）	
<p>（口译人员请提供担任国际会议、大型会议等翻译任务的情况）</p>	

四、任现职（取得现资格）以来发表、出版的译著（文）或论文

序号	译著（文）或论文题目	出版、发表在何处	作品字数（万）	发表时间	独（合）译	本人在合译中所承担部分及字数（万）
1	《아시아에서의 냉전/冷战在亚洲》	소명출판(昭明出版)	30	2022年7月	独译	
2	《韩国总统选举中的朝鲜变数及其变化研究》	《延边大学学报》(社科版)	1	2022年3月	作者	1

注 1：凡是合译的译文、译著或论文必须写明被推荐人在合译中所承担部分（章节或起止页数），并在申报材料中附上出版单位开具的证明函。
 注 2：译文或论文必须是发表在省部级以上公开发行的报纸或期刊上，内部刊物上刊登或使用的，相应单位盖章证明方可提供。

五、出国进修情况

进修起止时间	国 家	内容及专业
年 月~ 年 月		
年 月~ 年 月		
年 月~ 年 月		

六、国内进修情况

进修起止时间	进修内容及专业
2021年 8月16日~ 2021年 8月25日	中山大学人工社会与技术计算社会科学讲习班（社会学）
2021年 9月~2021年 12月	陕西省专业技术人员网络继续教育（公需课）
年 月~ 年 月	
年 月~ 年 月	

七、出国工作情况

工作起止时间	任务
年 月~ 年 月	

八、单位推荐意见（1000 字左右）

单位负责人签字：	单位：（盖章） 年 月 日
----------	------------------

注 1：本页必须加盖单位公章。

注 2：“单位推荐意见”主要按照《翻译专业职务试行条例》中相应等级任职条件的要求对申报人的水平、业绩给予评价和推荐。

代表本人翻译水平的中译外译文出处：33届韩素音翻译大赛
用途：汉译韩赛道译文

从春游到溺水

봄놀이에서 익수로

李润问我，如果幸福指数是一百分的话，你现在给自己的状态打多少分。我说，九十八。他大惊，怎么会这么高？我也有点诧异，怎么，你不幸福吗？他说，这个问题他问了好多人，多数人的回答都没超过八十分，不知为何我会有这么高的分数。

이윤이 나에게 물었다. 만약 행복지수가 100 이라면 지금의 자신에게 몇 점을 줄 수 있는지를. 나는 98 점이라고 답했다. 그는 크게 놀라면서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높을 수가 있지? 나 역시 조금 의아해서 물었다. 왜 너는 행복하지 않아? 그는 이 문제를 많은 사람에게 물었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대답은 80 점을 넘지 않았다고 하면서 나의 점수가 이렇게 높은 것이 궁금하다고 했다.

我也有点奇怪，为什么会有这么多人感觉不幸福呢？我就问他，那你觉得哪里不幸福？他一时也答不出来，只是觉得好像并没有那么快乐。我突然明白了，原来很多人认为幸

福就一定要天天快乐，这确实有些难。其实，对幸福过高的标准定义往往是造成不幸福的主要原因。

나도 의문이 들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까? 그리하여 그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넌 어디가 행복하지 않아? 그는 즉각 답하지 못했다.

다만 그렇게 기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순간 대다수 사람들이 행복은 꼭 날마다 기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확실히 어려운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행복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기준과 정의가 불행을 조성하는 주요한 원인이었다.

幸福的反义词是什么，是不幸吗？我觉得是麻木。

행복의 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 불행일까? 나는 무감각이라 생각한다.

当一个人对幸福的感知力越来越少的时候，就很难体会到幸福。在听《积极心理学》课程时，有个特别形象的观点让我记忆深刻，说是现在很多成年人对于幸福的追求分为两种：一种是溺水模式，就是认为只有解脱的那一刻才会幸福，在此之前都要忍受痛苦。比如，有些人认为，发财了就幸福了，找到一个爱人就幸福了，创业成功了就幸福了……而在实现此目标前，就是得忍耐痛苦的过程。另一种是春游模式，就是整个环节从过程到结果都是快乐的。就像我们童年听到春游的通知会开心得跳起，会回到家快乐地做准备，然后坐

상大巴愉快地和同学们聊天，到了目的地后的每一刻也都十足兴奋，整个过程都充满着幸福的感觉。我们成年后，很难再有这种感觉，慢慢地从春游模式变成了溺水模式，其实就是对于幸福的感知力开始变弱。

한 사람이 행복을 감지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질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어려워 지게 된다. <적극심리학> 과목을 들었을 때의 매우 인상적인 관점이 나의 기억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많은 성인들의 행복에 대한 추구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하나는 익수 모형, 즉 오직 해탈의 그 시점에 이르러야 행복할 수 있고, 그 이전에는 고통을 인내하여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면 행복할 것이고, 창업에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이전은 고통을 참는 과정이라 생각되어 졌다. 다른 하나는 봄놀이 모형, 즉 전체 프로세스에서, 과정부터 결과 까지 모두 기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마치 어린 시절 우리가 봄놀이 통지를 들었을 때 기뻐서 뛰고, 집에 돌아간 이후 즐겁게 준비를 하고, 버스에 앉아서도 유쾌하게 친구와 이야기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매 시각 모두 흥분에 차 있었던 것처럼 모든 과정이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것이다. 우리가 어른이 된 이후, 더이상 이러한 느낌을 갖기 어려워 졌다. 차츰 봄놀이 모형에서 익수 모형으로 변화되었다. 실제로 이것은 행복을 감지하는 능력이 점차 약해진 것이었다.

也许是我接触的病患太多，见识了太多的苦难，所以我对自已拥有的格外珍惜和知足。

아마 나는 접촉한 환자가 많아 너무도 많은 고난을 보았기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각별히 아끼고 만족해 하는 것일 수 있다.

大家无法想象，对于一个眼睛看不见的人来说，拥有一双健康的眼睛是多么幸福的事情；对于一个因为贫穷无钱医治疾病的人来说，一万块钱是多么重要。这些道理很多人都懂，但我真真切切地接触到了他们，所以我经常觉得老天给予我的足够多：能每天睁开眼看到天空，可以住在一个无须忍受暑寒的房子，可以步行走到地铁站，可以有一份稳定的工作……这些都让我非常感恩。

사람들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건강한 눈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상상하지 못한다. 또 빈곤 때문에 돈이 없어 질병을 치료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1만 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상상하지 못한다. 이런 도리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직접적으로 이들과 마주 했었기에 늘

하늘이 나에게 베푼 것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한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늘을 볼 수 있고, 더위와 추위를 겪지 않는 집에 살 수 있고, 걸어서 지하철역에 도착할 수 있고, 또 안정된 직장도 있다. 이런 것들 모두에 나는 감사한다.

我相信人与人、人与世间万物之间有一种超越语言和行为的联结，如果能用一种正念的思想与世间相处，人就会收到相应正念的回馈。过去的已经过去，未来也是不确定的，我能拥有的只有此时此刻。感受一枚树叶从空中飘落，飘飞出漂亮的弧线，感受一枚橘子瓣在口中爆裂，清甜的滋味蕴藏着大自然的馈赠，这种微小的幸福都是值得珍惜和体会的。当我用这种心态去生活时，我会觉得每时每刻都有种充实的幸福感。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세상만물 사이에 하나의 언어와 행동을 넘는 연결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또 만약 하나의 정념적인 사상으로 세상과 함께 한다면 그는 상응한 정념의 보답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나뭇잎 하나가 공중에서 흩날리면서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 꿀 조각 하나가 입에서 터질때의 시원하고 달콤한 맛에서 대자연의 선물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아주

소소한 행복은 모두 소중한 것이고 느낄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나는 모든 순간에서 충실한 행복감을 느끼게된다.

不把某种目标当作幸福的唯一砝码，而是用一种正念的心态去面对当下，用乐观的心态去构建未来，这种人往往无论取得什么结果，内心都是幸福的。比如天赐父亲和薇薇母女，他们能时刻地感知到生活中的美好和善意，所以他们对看似绝望的未来依然心怀乐观。直到现在，即便天赐和薇薇都全盲了，我仍然能感受到他们身上那种幸福和乐观的气息。所以幸福不是外部给予，而是内心发起，从内心涌出来的对现状的满足。学会知足是一种思想境界，如果能身体力行地去帮助一些境况不如自己的人，这种付出往往也是一种回馈。因为对比，更能珍惜自己所拥有的；因为付出，更能体会到自己的价值：这何尝不是一种幸福呢。

어떠한 목표를 행복의 유일한 잣대로 하지 않고, 정념의 마음가짐으로 눈앞의 시간을 대하고, 낙관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그린다면, 이런 사람은 어떠한 결과 앞에서도 마음은 행복으로 차 있을 것이다. 마치 텐츠 부자와 위이위이 모녀처럼 말이다. 그들은 매 순간마다 생활의 아름다움과 선의를 감지하고 있기에 절망적으로 보이는 미래 앞에서도 여전히 낙관하고 있다. 지금 현재, 즉 텐츠와 위이위이 모두가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난 여전히

그들에게서 행복과 낙관을 전달받을 수 있다. 이처럼 행복은 외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만족이다. 만족을 아는 것은 하나의 사상적 경지이다. 만약 실제 행동으로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돕는다면, 이러한 베품은 동시에 하나의 값음일 수 있다. 비교는 자신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더욱 아끼도록 하고, 베품은 자신의 가치를 더욱 잘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 또한 하나의 행복이 아닐까?

代表本人翻译水平的外译中译文出处：34届韩素音翻译大赛
用途：韩译汉赛道译文

고궁(古宮)

역사는 현재와의 대화다

古宮

历史是与此刻的对话

서울의 사대문 안에는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경희궁, 운현궁, 덕수궁 등 여러 고궁이 있다. 지금이야 큰 차도를 중심으로 구획되어 있는 도심 한복판이지만,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사대문 안 공간 구획의 핵심은 왕과 왕의 가솔들이 거주하는 궁이었다. 주요 도로들은 궁과 궁을 이어주는 역할을 맡았다. 조선 시대에 사대문 안, 즉 도성(都城)은 왕이 사는 동네를 뜻하는 경계 표시와 크게 다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首尔的四大门内有景福宫、昌庆宫、昌德宫、庆熙宫、运峴宫、德寿宫等众多古宫。虽然现在的四大门内是纵横交错的道路连接起来的城市中心，然而在一个世纪以前，这个空间的核心是国王与其家眷居住的宫阙。当时，道路仅起到连接各个宫殿的作用。朝鲜时期的都城带有警戒的意义，表明四大门内便是国王居住的空间。

‘고궁(古宮)’은 ‘옛날 궁’이라는 말이다.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나 러시아와 달리 한국의 경우엔 현재 존재하

는 모든 궁이 곧 ‘고궁’이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가장 큰 궁인 경복궁도 현재의 정치적 리더가 살거나 집무를 보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물은 도심의 광활한 구역을 점유함으로써 확실한 공간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지금 여기’의 사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역설이다. 서울의 한가운데, 그것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싼 땅값을 자랑하는 곳에 위치해 있지만 고궁은 현재의 부동산 감각이 침입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소도(蘇塗)’로 신성화되어 있다. 예전의 것을 무차별적으로 침식하고 순식간에 잡아먹는 현재라는 시간의 폭력성이 현대성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수긍하는가. 그렇다면 고궁은 국가 제도의 힘을 빌리기는 했지만 과거 시간성의 권위를 통해 현재에 강력한 담장을 친 현대성의 예외적 공간으로서 도시에 특별한 섬처럼 존재하는 사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古宮”指的就是“古代的宮殿”。相较于日本、英国、法国、俄罗斯的宮殿，韩国现存的宮阙都是“古宮”。景福宮位于首尔市中心，也是规模最大的，但它已不再是政治人物居住或办公的空间。因其位于城市中心、亦占据很大的面积，故存在感极强，但却不是属于“当下”的事物。尽管它处于首尔市中心、具有高地价，可地产商却不考虑开发它，因其已成为“苏塗”那样神圣的所在。现代性的本质是无差别的侵蚀并瞬间就能使其消弭的暴力性，你是否同意这样的

观点? 古宫一方面借助了国家制度的力量, 但它同时能凭借其曾经的权威, 成功的与当下隔绝开来, 将自己变为现代性中的例外, 成为城市中特殊的存在。

이 사물의 ‘과거’는 다른 사물의 과거와 매우 다르다. 거주자는 사라졌지만 집단의 기억을 통해 ‘전통’과 ‘역사’라는 아우라를 두름으로써 범접하지 못하는 상징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징성은 과거 한 사회의 절대적인 정치 권위때문만이 아니라 궁을 구성하는 고색창연한 기와와 단청, 단아한 뜰과 기품 있는 공간 배치를 바라보는 현대 도시인들의 아련한 향수때문에도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들은 궁을 한 민족의 자긍심과 관련된 사물로 승화시킴으로써 그것을 한 역사공동체의 공동 소유물로 받아들이게 한다.

古宫的“历史”与其它事物的过去有着明显的区别。虽然已不再是居住空间, 但在集体记忆中, 因其“传统”与“历史”的光环, 而有着不可侵犯的象征性。这种象征性不仅来自于它在历史中的绝对权威, 同时也因现在的人们从它那古色瓦片、丹青、精致小院和气派的空间布局而感受到的朦胧乡愁。并且, 这些形象将其升华为一个与民族自信相关的事物, 使它成为了历史共同体的共有之物。

문제는 고궁이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향수와 고색창연한 이미지들이 ‘궁은 본래 무엇이었나’하는 질문을 휘

발시킨다는 데 있다. ‘고궁’이 된 이 사물은 과거의 진정한 역사성을 왜곡시키는 교묘한 메커니즘을 갖는다. 한 역사공동체에 있어 이 사물은 절대왕좌의 거주지, 구중심처(九重深處)로서 과거에는 공동체의 공유 공간이 아니었다. 이 사물이 만인의 공유 공간이 된 것은 현대적 시간의 도래에 의해서였다. 그러니까 이 사물은 신성불가침인 과거의 담장을 통해 현재라는 강력한 시간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힘을 발휘하지만, 이 과거는 현재를 사는 이들로 하여금 그것의 참된 역사성을 묻게 하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현대 도시인들의 무의식에서 이 사물은 이제 ‘과거’라는 외형을 띤 ‘공원’ 이상의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늘날 고궁에서 도시인들이 느끼는 ‘과거’의 향수는 역사적 의미에서도 일탈해 있으며, 그 외형만이 향유된다는 점에서 키치적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E. H 카(E. H. Carr)의 유명한 명제를 상기한다면, 역사적 유물의 외관을 두르고 있는 이 사물은 실은 더 이상 ‘역사적’이지 않다.

然而古宮所引发的乡愁与其古色古香的形象，会让人不去追问“宫殿的本质是什么”这一问题。成为“古宮”的它具有巧妙的机制来歪曲真正的过去。在过去，它曾经是一个绝对王者的居所，是九重深处，因此它不是共同体共有的空间。随着现代社会的到来，它才变为人们所共有的空间。虽

然它能以神圣不可侵犯的历史之墙阻隔时间的渗透，它的过去却让那些活在当下的人们不去追问其本质。在当代都市人的潜意识中，它被认为是具有“历史”外衣的“公园”，仅此而已。今天，人们通过古宫感受到的“过去”之乡愁，已经脱离了其历史意义，空有表象而已。联想到E.H 卡尔的“历史是过去与现在之间持续的对话”这一著名的命题，它虽拥有历史遗物的外衣，却已不再是“历史的”。

궁이 가진 진정한 역사성-정치성을 가장 정확하게 간파한 것은 식민지 지배자들이었다. 망한 나라의 궁을 허무는 데 그치지 않고 궁이 그 자리에 짐승의 우리를 들여 놓는 한편 총독부같은 식민지배의 아성을 세웠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짐승의 우리로 바뀐 동물원(창경원)은 개장 직후부터 한밤의 벚꽃놀이를 즐기는 이 나라 백성들로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뤘다. 이 사물의 의미는 그때나 지금이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다.

殖民统治者最为清楚地看破了宫殿具有的历史性与政治性。朝鲜亡国后，他们不仅铲平了宫阙，还在原址上修建了动物园、总督府等具有殖民象征性的建筑物，都正是基于此原因。昌庆苑变为动物园之后，它便被来欣赏樱花夜景的普通百姓们挤得水泄不通。它的意义，不管在那时还是此刻都没有被共同体的成员所真正理解。

고궁은 과거의 사물이지만, 예전에 그 사물이 공동체 전체의 삶과 관련지어 무엇이었는가를 깊이 따져 묻지 않는다면 그 과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적인 차원으로 인식되지 못한다. 고궁의 역사를 복고적으로 신비화·낭만화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궁은 표면적으로만 신성한 과거의 아우라를 두른 공간일 뿐 현대 도시인의 필요를 충족하는 휴식처, 점잖은 놀이공원 외의 별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古宮是历史之物，但如果不再深究它与整个共同体之间的联系，在历史层面上，其过去就不可能真正的被理解。把古宮复古化，进而神秘化、浪漫化的情况也是一样。今天，对于大多数人来说，古宮是满足都市人休息所需的、安静的公园，仅是表面上带有历史神圣光环的一个空间而已。

그러나 역사학자 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사가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삶을 묻는 끊임없는 대화 및 성찰의 과정이라면, 고궁은 ‘지금 여기’의 현대적-현재적 사물이어야 할 것이다.

若如历史学家卡尔所讲的那样，历史就是通过研究过去，并以此找寻当下与未来之路的不间断地对话及反省过程，古宮便应是属于“此时此地”的此刻的事物。

조선/한국어 번역에 대한 세 가지 생각

조선/한국어 번역을 하나의 업으로 생각하고 번역인의 마인드로 여러 가지 일들에 종사한 지도 이미 여러 해가 지났다. 이 과정에서 종종 어려움도 부딪쳤지만 보람도 있었다. 이번 기회를 빌어 번역이라는 업에 종사하면서 고민했던 많은 문제들 중에서 세 가지 문제를 택하여 생각을 전개하려고 한다.

생각 1. 표준말에 대한 생각

어떤 번역이 좋은 번역일까? 가장 널리 알려진 답은, 좋은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어야 하고, 읽기 쉬운 번역이어야 하고, 아름다운 번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信、达、雅). 하지만 실제로 같은 글도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번역본도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번역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은 있는 것일까? 이 문제는 번역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생각하고 있는 문제이다. 번역은 또 상황과 번역하는 텍스트의 장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달라야 한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고민

해야 하는 부분은 중국어를 조선어/한국어로 번역할 때 어떤 표준을 따라야 하는 문제이다.

중국 조선족들이 사용하는 조선말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언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같은 것일까? 여러 사람들이 조선어를 할 줄 아는 나에게 이 문제를 물어왔고, 고국을 떠나 한국에서 유학할 시, 나 자신도 이 문제를 생각한적 있다. 게다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도 모두 같은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사용하는 조선어의 억양도 다르다. 비단 말의 억양이 다를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사용하는 문장이나 단어도 다르다.

한편, 오늘날 세계에 4 천에서 5 천 개에 이르는 언어가 있고, 조선/한국어를 사용하는 총 인구는 조선반도 전역에 거주하는 인구, 조선반도에서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중국, 미국, 일본, 중앙아시아, 남미, 대양주 등 거의 지구 전역에 펼쳐진 8 천만 명 정도가 있다. 조선어/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수는 13 위에 이를 정도로 꽤 널리 사용되는 언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표준말을 정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언어는 사회문화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는다. 중국

조선족들이 사용하는 조선말은 한어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었고, 한국에서 사용되는 한국어는 외래어가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조선에서 사용되는 표준말 역시 그들만의 특성을 띠고 있다. 학술적으로 이러한 언어의 차이는 방언의 연구분야로 여겨진다. 방언 연구는 또 지역 방언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언어지리학과 사회 방언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사회언어학으로 나눌 수 있다.

실제로 조선/한국어의 방언은 지역적으로 충청, 경기, 전라, 경상, 제주, 서울, 황해, 평안, 함경, 육진 등 조선반도 모든 지역의 방언일 뿐 아니라 조선/한국어를 사용하는 모든 계층들이 사용하는 방언이 포함된다. 또 시간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수 있다. 얼마 전 재미한국계 작가가 창작한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인터넷 드라마 <과칭코>에서 주인공들이 사용한 조선어는 방언의 차이와 변화를 잘 보여준다.

방언과 방언 사이에는 우열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회역사적 요인 때문에 소위 “표준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어떤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사용하는 말에 따라 사회적 차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상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서울에 올라온 이후에도 그들의 억양에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경상도 지

역 사람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고, 전라도 지역의 사람들은 서울에 이주한 이후 서울말로 말투를 바꾸는 경우는 이와 반대이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다. 중국의 조선족들도 한국에서 조선족 말투때문에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일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이 자신을 조선족이라 하는 것도 이러한 말투에 따른 사회적 차별 때문이다.

중국조선족의 조선말맞춤법은 조선어문사업협약소 조 판공실에서 펴낸 “조선말규범집”을 따른다. 한글맞춤법은 국어연구소에서 1989년에 펴낸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규정 해설”을 바탕으로 하고, 조선의 맞춤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에서 펴낸 “조선말규범집”의 것을 따르기로 되어 있다. 이처럼 현실에서 조선어/한국어는 서로 다른 규범을 따르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 표준도 다르다. 때문에 번역함에 있어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때로는 조선어로 번역하고 때로는 한국어로 번역해야 한다. 전국번역자격시험이 조선어/한국어번역시험으로 이름지어진 것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조선어/한국어에 번역에 있어서 어떤 “표준”을 따라야 하는지는 번역을 하는 동안 계속고민해 왔고,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생각 2. 정치적 민감성에 대한 생각

이 부분은 <아시아에서의 냉전>을 번역출판하는 과정에서 늘 고민했던 부분이다. 비록 스스로를 지식의 전달자라고 위치시켰지만, 중국, 한국, 조선 등 여러 지역의 정치적 현실과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번역을 하면서 여러 용어들의 사용을 주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에서는 조선반도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반도라고 한다. 한국사람과 조선사람들이 만났을 때에는 통상적으로 ‘이북’, ‘이남’ 혹은 ‘북측’ ‘남측’이라 서로를 칭한다. 중국에서 한국을 ‘남한’ ‘남조선’이라고 할 때가 있고, 조선을 ‘북조선’ 또는 ‘북한’이라 칭하여야하는 상황이 있다. 때문에 번역을 하면서 정치적 민감성을 갖고 반드시 상황에 부합되는 언어를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역자는 외교관이 아니라지만, 정식으로 출판된 책을 다른 나라에서 번역 출판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언어 습관과 상황에 맞게 일부 용어를 변화해야 하는 경우에 부딪치게 된다. 중국에서 출판된 도서를 외국어로 출판하는 경우에서나 외국에서 출판된 책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일부 내용이 그 나라의 공식입장과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 때 역자는 원문의 내용을 변용하거나

특정 부분을 주석의 형식으로 설명을 더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원문의 저자와 연락하여 설명하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

이처럼 정치나 역사적 내용의 글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민감성을 갖고 번역해야 한다. 번역 과정에서 원 저서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의무가 있지만 상황에 맞게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설명을 더할 필요도 있다. 번역서를 내면서 구체적 상황에 맞게 원문의 어휘를 바꾸어야 하는 부분도 가끔 있었다. 이처럼 특정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번역할 시, 정치적 민감성을 생각하면서 번역하는 것이 번역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이라 생각된다.

생각 3. 원문과 번역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생각

이 문제는 번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고민했던 문제이지만 아직까지도 완전한 해답을 찾았다고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다. 처음 번역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문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번역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완전하게 번역함에는 원문의 단어나 어순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일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언어들 사이에서 똑 같은 단어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막걸이”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米酒”라 하는 것이 보

통이지만, 중국 섬서성에서 “醪糟”라는 음식은 막걸리와 비슷하다. 때문에 섬서성에 거주하는 독자들에게 막걸리를 소개할 때 “醪糟”라고 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다. 또 언어마다 특정한 어순이 있기 때문에 원문의 어순을 그대로 따른다면 매우 어색할 수 있다. 시를 번역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단어사용과 문장의 형식을 함께 고려하면서 번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번역문이지만 독자가 문장을 읽을 때 어순이나 단어 모두가 자연스러워 번역된 문장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상황이 좋은 것일까? 대부분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번역이 서로 다른 문화의 교류라는 점에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익숙하지만 조금 낯설게 느껴져 문화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고 나아가 다른 문화를 탐구하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번역은 언어를 번역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화를 번역하고 교류하는 것이다. 실제로 번역을 하면서 번역의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 번역 실천에 있어 기법이나 단어선택에서의 어려움 뿐 아니라 날마다 꾸준히 모니터를 마주하고 번역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아니었다. 하지만 여러 노력끝에 합당한 단어를 찾아냈을 때의 그 기쁨, 목직한 번역서를 받아들였을때의 감격은 또 잊을 수 없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배우면서 토론하면서 더욱 좋은 번역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